

"우리는 사회환경에 너무 순응하며 산다"

March 25, 2019 | 전지현 기자

C
CULTURE
2019년 3월 25일 월요일
매일경제 A31

"우리는 사회환경에 너무 순응하며 산다"

스타 작가 마이클 엘름그린·잉가 드라그셋



교통표지판을 변형한 작품으로 너무 쉽게 사회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에게 경고를 울린 덴마크 작가 마이클 엘름그린과 노르웨이 작가 잉가 드라그셋(오른쪽)이 개인전 전시장에서 서 있다. (사진제공=국립현대미술관)

‘SLOW(천천히)’ ‘TURN(회전하라)’ ...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 K3 1하얀 벽에 아스팔트 소재로 그린 교통안전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 전시장에서 우뚝 선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교통안전표지판에는 아무 표시가 없다. 겨울처럼 매끄러운 표면이 주변을 비출 뿐이다.

덴마크 작가 마이클 엘름그린(58)과 노르웨이 작가 잉가 드라그셋(50)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흔들기 위해 이 설치 작품을 만들었다. 전시장에서 만난 엘름그린은 "150년 전만 해도 교통표지판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방향과 행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변 가까이에서 우리를 조정하고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공공 규칙을 부각시키고

싶었다"고 작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전시 주제는 '순응(Adaptation)'. 너무 쉽게 사회 체제와 주변 환경에 순응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조각들을 내세웠다. 엘름그린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교통표지판에 비친 자신을 보고 관람객 스스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간이 순응하는 방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 조각들이 K2 전시장을 채운다. 입구에는 거대한 꼬리뼈 형상 조각이 놓여 있다. 진화하면서 퇴화된 꼬리뼈를 통해 동물이라는 사실을 명각한 채 살아가는 인간을 비판한다.

집계손가락으로 벽을 뚫고 있는 손 조각은 예술의 부활을 의심해 배를 찢러보

인간의 방향·행동 제어하는
교통표지판 풍자하는 조각 등
고정관념 뒤흔들 설치작품 전시
"25년째 공동 작업하지만
매일 의견 충돌이 작품에 영감"

는 재차 도마를 찢었다. 드라그셋은 "화이트 큐브(갤러리) 벽이 물리적 의미를 넘어서 하나의 사고 체계, 정형화된 예술 전시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기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손가락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에서 우독 손이 많이 등장한다. 손 깃털을 새긴 핸드데일(손잡이), 손

가락 자국이 난 남성 토르소 조각들이 등장한다. 드라그셋은 "촉각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자를 조각한 대형 설치물 'The Observer(Kappa)'는 갤러리 벽에 붙어 있다. 드라그셋은 "베를린 스튜디오(작업실) 건너편 거대한 노동자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흔히 보이는 풍경이다. 남자들이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발코니에서 흡연을 한다"고 말했다.

엘름그린은 "갑자기 실내 흡연을 기피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요즘 사람들은 밖에서 담배를 피운다. 원래 발코니는 비바람 공기를 즐기는 공간으로 생겨났는데, 이제는 흡연 장소가 됐다. 사람들이 너무 빨리

리 체제에 순응하면서 공간 의미가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셀피(selfie) 열풍을 투영한 작품 'Multiple Me(멀티플 미)'도 눈에 띈다. 직사각형의 돌린 구조물 안에 원형 화장 거울 7개가 부착돼 있다. 그런데 거울이 정면 각도로 설치되지 않아 얼굴을 비출 수 없다. 엘름그린은 "소셜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셀피족이 늘었다. 불행한 사고가 나거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봐도 자기 얼굴이 들어가는 셀피를 찍는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자아도취자)는 위험하다.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가 없다면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니까"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2015년 플라토 전시 이후

두 번째 개인전이다. 4년 만에 한국을 찾은 드라그셋은 "2007년 안양예술공원 공장에 공공전화 박스 작품을 설치했는데 계속 전화통 걸면서 안무를 견해었다"는 농담으로 소감을 대신했다.

두 사람은 1994년 코펜하겐 바(Bar)에서 우연히 만나 이듬해부터 공동 작업을 시작했다. 첫눈에 솔메이트(영혼의 친구)라는 것을 알았다고.

엘름그린은 "그때만 해도 현대미술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둘이 작업하면 비용을 낼 수 있고 대화도 잘 통했고 정치적 관심도 비슷했다"며 과거를 떠올렸다. "외우, 벌써 25년"이라고 말하는 드라그셋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금도 바에서 작품 논의를 많이 한다. 회의 장소에 영감을 받아 술병이 뒹뒹하게 쪼인 선반을 추상적으로 만든 작품 'Color Field(컬러 필드)'가 탄생했다.

마음 맞는 친구도 동업을 하면 싸우기 마련이다. 두 사람이 가장 심한 의견충돌을 일으켰을 때는 연재임가. 엘름그린은 "바로 예제다. 협업에서 갈등은 필수다.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두 팔이 배개를 들고 싸우는 조각으로 만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드라그셋은 "싸움은 건강하다는 증거다. 좋은 결과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냉소적인 유머와 활력이 풍겨나는 작품세계를 보여준 두 사람은 2002년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술상인 함부르크 반 호프상을 수상해 작가로서 입지를 굳혔다. 2009년 네시노 비엔날레에서 북유럽과 덴마크를 대표해 국가관전을 선보였으며 2017년 이스탄불 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았다. 전시는 4월 28일까지.

(02)735-8449 전지현 기자